



강진면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고추장 나눔행사

임실군 강진면 새마을 부녀회(회장 김순자)는 지난 22일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고추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직접 담근 고추장을 마을 저소득 주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소외된 이웃들과 정을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강진면 새마을 부녀회의 고추장 나눔 행사는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쌀 나눔, 마을 봉사활동에 앞장 서면서 지속적인 온정을 나누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강진면 새마을부녀장은 "봉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감사드리며, 행진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실=진중영 기자



남원거점스포츠클럽, 지역민 위한 지역봉사 귀감

남원거점스포츠클럽(회장 진봉모, 이하 클럽)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외계층을 위해 지역봉사활동을 펼치며 귀감을 사고 있다. 클럽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회원사업장 소독봉사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봉사를 실시했다. 또한 최근에는 관내 소외계층 및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실버카 10대를 구입해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약대 유치 주역들, 발전기금 기탁

황기준 명예교수 5천, 양문식 명예교수·채한정 학장 각각 1천만원 쾌척

전북대학교 약대 유치 당사자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약대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내놓았다.

황기준 명예교수가 5천만 원을, 2014년 부총장으로 당시 약학대학설치추진단장을 맡은 양문식 명예교수, 그리고 당시 부단장으로 함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채한정 전북대 약대 초대 학장이 각각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들은 당시 거점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약대가 없는 전북대에 약학대학 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렸고, 지역과 정치권 등을 아우르며 일선에서 노력해 온 인물들이다.

특히 황기준 명예교수는 전북대가 본격적으로 약대 유치에 뛰어든 2009년 약대추진위원장을 맡아 기획 및 자료집을 제작하고 관련 분야 여러 기관들과 교류의



폭을 넓히면서 전북대 약대 유치의 전체 밑그림을 완성했다.

또한 양문식 부총장 이후 2016년 정성석 교수(통계학과)가 대외협력 부총장을 맡으며,

단순한 약사 배출이 아닌 지역 천연물 소재 기반의 신약개발 분야를 선점할 수 있는 연구·융합 중심의 약대 유치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오며 약대 유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약대 유치의 주역들이 발전기금을 내놓은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약대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특히 황기준 명예교수는 5천만 원 전액을 약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맡겨 약대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회, 실업팀 간담회 개최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22일 육상과 카누, 바이애슬론, 수영, 철인3종, 물러, 세팍타크로, 양궁 등 8개팀 실업팀 지도자 및 선수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2020년 주요 대회 일정 및 전국종합체육대회 대회 각종 변경사항, 지도자·선수등록 일정 등을 공지했다. 또한 선수와 지도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코로나19와 고농도 미세먼지, 폭염 대응방법 등도 안내했다. 아울러 각종 비리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경기력을 향상시켜 전북체육 위상을 드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상을 예방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선수들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설공단, 3년째 홀몸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올해에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혼자 어렵게 사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21일, 22일 양일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사는 주모(90) 할머니와 김모(81) 할머니의 집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두 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공단 사랑나눔봉사단(회장 김창규)은 주 할머니의 집 마루바닥과 싱크대 하부를 보강하고 주방바닥도 시멘트로 새로 마감했다. 또 천장과 벽에 마감재를 설치하고 전기안전 시설도 보수했다. 봉사단은 또 김 할머니의 집 주방 바닥 장판을 새로 설치하고 싱크대와 수납장 등 낡은 주방기구들을 교체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기계계와 건축계 등 기술직 직원을 비롯한 8명의 공단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설 보수와 집기 구입에 쓰인 예산은 공단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충당했다.



백순기 이사장은 "직원들의 작은 노력으로 홀몸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예수병원, '약물안전의 날' 안전 라운딩 진행

예수병원은 지난 21일 진료처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환자안전담당자가 함께 하는 '약물안전의 날' 라운딩을 진행했다.

예수병원이 매월 진행하는 안전라운딩 가운데 하나인 이날 '약물안전의 날' 라운딩은 고위험약품과 마약관리, 약물냉장고 관리와 비치약품, 응급약품의 유효기간, 규정에 따른 의약품 준비구역 환경관리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약물보관 및 관리, 인식강화에 대한 퀴즈를 통해 직원을 격려하고 '약물관리 및 안전을 위해 병원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의견 교환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0년 11월 25일 등록(일간) (우)65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9-66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6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효진지사 010-6645-9935	필봉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385	정읍지사 536-376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22-6157
	익산지사 659-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준법지원센터, 농촌 일손 돕기에 '구슬땀'

남원준법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코로나19 등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참여시키는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서며 농가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현재까지 순창군 금과면 딸기 농가 등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35명을 투입해 구슬땀을 흘리며, 딸기 줄기제거, 잡초제거, 하우스 정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봉사에 참가한 이모씨(48세)는 "혼자 농사일을 하는 어르신을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 농장주 설모(65세) 어르신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밭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도와주어 수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센터 마상철 소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알림

전주매일 신문사 편집위원회

- ▲일시: 5월 27일(수), 오후 7시
- ▲장소: 백송회관(전주시청 민원실 옆)
- ▲문의: 063-288-9700, 010-7304-5665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